

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통한 사용자 참여 설계 절차의 이해

Understanding User Participated Designing Process by means of DQI

필자 : 강태웅, 현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by Kang, Tae-wong / Assistant Professor, Architectural Studies, College of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강태웅 교수는 단국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역사/이론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특히 구조주의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심이 있다. 본 연재 역시 이 같은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2008년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한국교육시설학회 학술이사과 DQI 분과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다.

목 차

1. DQI란 무엇인가?

What is the DQI

2. DQI의 핵심,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시스템의 국내 적용가능성 A Roll of Facilitator of DQI and an Applicability of the system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통한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DQI는 건축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서 서로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 및 시스템으로써 2002년 영국에서 최초 개발되어 공공건물의 설계과정에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교육시설만을 위한 DQIS를 개발하였고, 현재 미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도입, 적용되어 사용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BTL/BTO 사업방식을 통한 획일적인 교육시설에 염증을 느낀 사용자와 사업주체가 점차 그 지역과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시설을 요구하는 현실과 맞물려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커졌다.

DQI는 프로젝트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사용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다양한 시각의 교환과 토론을 통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해준다. 그 요구사항들은 보고서 형식으로

설계자에게 전달되고 명확한 방향의 설정과 요구사항으로 인해 건축사들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미학/창조적 작업을 하는데 할애 할 수 있다. 이 문서화된 요구사항은 또한 설계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설계된 안에 대해 설계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설계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한국교육시설학회를 시작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 시스템과 도구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킨다는 합의점은 이미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후에 한국형 DQIS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재를 통해 건축사들의 DQI의 이해와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DQI의 핵심,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시스템의 국내 적용가능성¹⁾

A Roll of Facilitator of DQI and an Applicability of the system

연재의 지난 회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DQI의 사용은 건물의 실체가 없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참여주체는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Briefing Workshop을 통해 각각이 가진 건물의 상(desired image)을 논의하며 공동의 상을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 사이의 의견의 수렴과 중재이다. 본 회에서는 이러한 소통과 중재의 가운데 서있는 DQI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 그리고 DQI의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 신중하게 선별된 사용자 그룹인 스티어스 그룹이 조직되어야 한다. 사용주체에 의해 CIC로 DQI의 사용신청이 통보됨과 동시에 사용주체는 스티어스 그룹의 리더(Leader)를 선출해서 CIC로 보낸다. 리더는 CIC에서 DQI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도구의 운영절차,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리더/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그 흐름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DQI 프로세스의 인적구성

DQI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크게 해당 프로젝트를 발주, 관리하고 그 건축물의 직접적인 이용자가 되는 '참여주체'와 프로젝트의 디자인, 시공,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실행주체'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수렴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정주체'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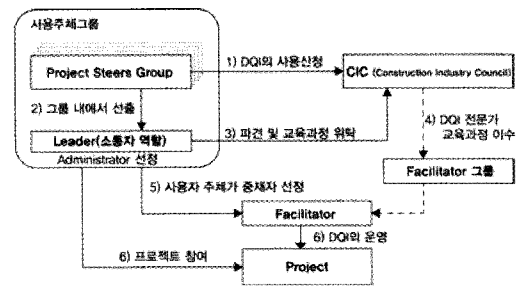


그림 1. DQI 프로세스를 위한 인적 구성 및 순서도

표 1. DQI 운영의 인적구성

실행주체	참여주체	행정주체
- 건축가 - 구조기술자 - 건축설비 기술자 - 디자인 전문가 - 조사원 - 기타 기술자	- DQI Leader - 건축주(발주자) - 시설관리자 - 시설관리자 - 시설이용자 - 지역주민 - 계약담당자 - 프로젝트 관리자 - 행정 실무자	- DQI Facilitator - 조연자 - Administrator

여기에서 참여주체와 실행주체를 실제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설계의 많은 부분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게 되는 프로젝트 스티어스 그룹(Project Steers Group)²⁾이라고 한다. 이 그룹은 건물을 이용할 다양한 사용자(학교의 경우 선생,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관리자 등)뿐만 아니라 시행자, 기획자, 시공자, 건축가로 구성되며 이후 절차의 중요한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DQI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프로젝트에

DQI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DQI 리더(Leader), 행정 지원가(Administrator) 그리고 DQI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담당하게 된다.

리더는 프로젝트의 주요 관계자들을 조직하고 DQI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일정과 성격, 예산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리더는 유사한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DQI 시스템의 도입과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로서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DQI 프로세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목적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DQI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가 및 퍼실리테이터를 임명하고 이들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향상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1) 이 글의 내용은 <강태웅, "영국의 교육시설을 위한 DQI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5호, 통권 제78호, 2010>, <이화룡, "학교건축 기획단계에서의 DQI 적용 워크숍 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5호 통권 제 78호, 2010> <김승재; 강태웅; 소갑수; 윤용집; 김중현, "영국의 사용자 참여형 DQI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한국 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2호, 통권 제75호, 2010>, <김상호; 김영현; 이민우,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8>에서 편집, 발췌하였다.

2) DQIS(Design Quality Indicator for School)에서는 이 그룹을 Stakeholder라고 한다.

한다. 동시에 DQI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 그룹을 선정,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DQI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DQI 온라인 툴의 이용대금과 DQI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DQI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는 워크숍의 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워크숍에 가능한 직접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과정에서 워크숍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DQI 행정지원가는 리더가 조직 내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DQI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등 행정적인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행정지원가의 임명여부를 리더가 선택하여 결정한다.

또한 행정지원가는 DQI 프로세스에 관련된 실질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고, 워크숍 참석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워크숍에 참석하여 리더와 퍼실리테이터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DQI 퍼실리테이터는 DQI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며,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양성된, CIC의 승인을 받은 전문가로서 DQI 프로세스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해 편견 없는 중재자로서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간사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퍼실리테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DQI 워크숍 참여자를 결정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DQI 프로세스 전체의 연결자 역할을 한다. 또한 퍼실리테이터



그림2. CIC 퍼실리테이터 간담회 (2010.7.21)

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기획하고, 워크숍에서 나온 중요한 문제와 의견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공공건

축의 조성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DQI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던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단계별로 초기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론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워크숍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즉, 유능한 퍼실리테이터는 성공적인 DQI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고 그 결과의 성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퍼실리테이터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CIC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하지만, 그 이후에는 CIC로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 DQI의 모든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부터, 그 결과를 독해하고 전달하는 것과 심지어 DQI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를 CIC에 전달하고 DQI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 실제 사용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CIC에 보고하고 개선을 중용하는 등 이 모든 것이 퍼실리테이터가 비전문가들과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의 역할³⁾

DQI 워크숍의 성패는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호응과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의 능숙함이 좌우한다. 특히 DQI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단계에서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워크숍을 위해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한 마디로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느 정도 건축적 이야기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축적 언어의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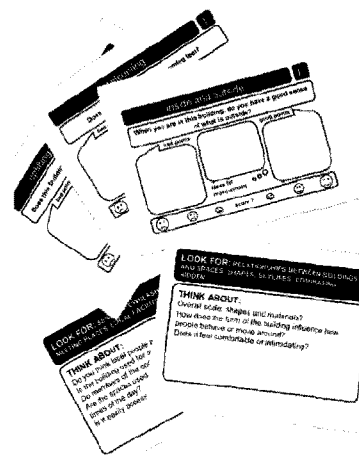


그림3. 새롭게 개발된 DQI-Cards

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 과정은 성공적인 DQI의 진행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최근 퍼실리테이터 Mrs. Annette Hards는 보다 효과적이고 쉽

3) DQI 시스템은 기획단계에서 사용하는 브리핑 워크숍(Briefing Workshop: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계)과 설계단계 이후에 사용하는 어세스먼트 워크숍(Assessment Workshop: 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점검단계)로 구분된다. 각 워크숍에 대한 설명과 결과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연재의 "DQI란 무엇인가"를 참조.

게 건축적 언어를 습득시키고 DQI의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해 DQI-Cards라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했다. 이것은 DQI의 큰 범주인 기능성(functionality), 영향력(Impact), 건축품질(Building Quality)로 색을 구별하여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소항목들을 간단한 키워드 형식으로 보여주며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다.

뒷면에는 키워드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축적 개념들을 정리해서 비전문가들이 건축언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 다른 건물 사례를 방문, 이 카드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며 각 키워드에 대해 그 건물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계별로 표시하고 개선의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해본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건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제안과 토론이 가능해진다.

DQI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합의된 결과가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의견의 도출이 선행되고 그 의견들을 DQI의 항목에 반영하여 각 항목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DQI의 항목에 반영하여 각 항목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DQI에서는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weighting)한다고 한다. 각 항목은 초기에 설정된 값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DQI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 참여자의 의견과 여론에 의해 변경된다. 합의된 의견은 프로젝트로부터 독립적인 퍼실리테이터에 의해서만 입력이 가능하다.⁴⁾ Briefing Workshop 단계를 거친 DQI는 이제 다른 DQI가 되어 버린다. 즉,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DQI가 된 것이다.

Briefing Workshop의 결과는 퍼실리테이터로 인해 보고서(Facilitator Report)의 형식으로 작성이 된다. 이것은 설계할 건축가와 CIC 그리고 참여주체의 리더에게 주어진다. 이후의 설계 프로세스와 DQI 과정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설계 중간에 실시되는 Assesment DQI의 기준이 된다.

Assesment Workshop 단계에서의 역할

Briefing Workshop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각 실행 주체(디자인팀)에게 전달한 후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 몇 번의 Assesment Workshop을 하게 된다. Briefing Workshop에 비해 이 단계의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참여주체의 의견 수렴보다는 디자인된 결과에 대한 각각의 참여자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워크숍 준비 단계에서 디자인팀이 어떻게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디자인 결과를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여 조정하는 것, 그리고 실제 워크숍

이 진행되어 디자인팀이 그들의 설계를 참여자들에게 발표할 때 소통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워크숍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퍼실리테이터 보고서(Facilitator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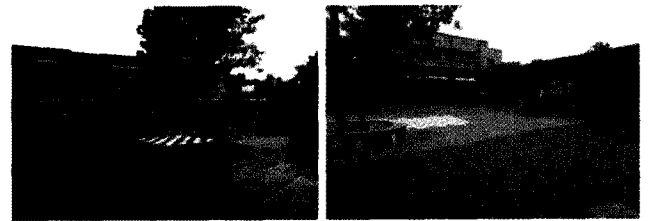


그림4. 세인트 막달렌 초등학교 전경

앞서 기술했듯 단계별 워크숍의 결과는 퍼실리테이터에 의해 보고서(Facilitator Report)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는 DQI 프로세스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래의 내용은 2006년 1월 26일 영국 세인트 막달렌 초등학교(St. Mary Magdalen Junior School)에서 개최된 Briefing Workshop 단계의 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를 요약한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각 참여주체들이 DQI 지표 중 각 부문별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한 후 합의를 도출한 것이며, 프로젝트 특성상 기본 요구(Fundamental Requirement)의 기능성(Functionality)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1. 기능성(Functionality)

기능성은 배치, 공간들의 관계성 그리고 건물 사용의 편리성 등에 관여하는 지표이며, 접근성, 공간 그리고 사용성으로 구성된다.

1.1) 접근성(Access)

표 2 접근성(Access)과 관련되어 제시된 의견

참여자	제시된 의견
사용자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까지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출입을 위한 정문은 한 개만을 설치하여야 함 · 정문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함 · 자전거 거치대는 설치되어야 함 ·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우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명확한 신호체제를 구비하여야 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차장은 마련되는가? · 학교 주차장은 부모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설치되지 않는가? · 자전거 운전자를 고려한 건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학교 주변에서 학교를 찾기 쉬워야 함 (큰 학교 건물을 원함)
공급자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건물 배치는 쉽게 이해되어야 하며 주변에서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함.

4) 각 Workshop 단계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퍼실리테이터가 총괄하여 리더와, 발주자,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중치에 대한 열람과 조정도 퍼실리테이터만이 할 수 있어 리더가 디자인 방향의 변경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접근성은 모든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지표이며, 대교통 접근성 및 주차 공간, 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용이성 등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는 워크숍에서 이 항목과 관련하여 논의된 의견들을 참여 주체별(사용(요구)자, 학생, 공급자(디자이너))로 요약한 것이다.

접근성(access) 세부지표 중 수정 또는 보완되는 기본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번 항목 '교차 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야한다' : 이 학교와 같이 교지가 좁고 버스나 지하철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지역의 학교의 경우 주차공간을 기본요구 사항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오히려 학생들이 학부모 차에서 여유 있게 내리고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나) 4번 항목 '건물과 부지 배치에서 자전거 운영을 배려하여야한다' : 물론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전거 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못지않게 런던과 같이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에서는 학생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Green Routes)할 수 있도록 기본요구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1.2) 공간(Space)

공간 항목은 규모 및 면적의 적정성, 동선의 배치 등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표는 워크숍에서 관찰되었던 내용들이다.

표 3. 공간(Space)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

참여자	제시된 의견
사용자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넓고 좋은 운동장 공간은 매우 중요함 식재료 반입부와 격리된 음식 조리 공간 필요 사위실 특히 자전거 통근 교사용 사위공간 보간실과 학생 탈의실 필요 교실 중간 중간에 컴퓨터 코너 설치 학년별 그룹 공간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 배치(공동체 의식 함양) 학생들 동선이 교사를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런 모임과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선처리 긴 복도는 피할 것 모든 학생들이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질 높은 화장실 마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양벽 등반 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 교실 사이에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주변을 덜 여수선 하게 할 것 전체 학교시설 모두를 크게 할 것. 특히 부역, 교실, 운동장, 홀, 체육관 사물함 등 음악실은 훨씬 크게 계획하고 식당과 ICT실을 현재보다 여유롭게 계획 할 것 학교건물은 최소한 3층으로 할 것 넘너 구별된 탈의실과 샤워실(좋은 색상 인터리어)

공간(Space) 세부지표 중 수정 또는 보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가) 4번 항목 '교육 및 학습 공간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야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학습공간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재 부수 지표(Added value)인 것을 기본 지표

(Fundamental value)로 수정되어야 함.⁵⁾

나) 5번 항목 '홀(hall)은 적절한 크기로 계획되어야 하며 여러 목적들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야한다' : 이 항목 역시 현재 부수 지표에서 기본요구 지표로 수정되어야 함. 왜냐하면 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1.3) 사용성능(Uses) 사용성능은 현재 요구 성능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요구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며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 및 효율성, 가변성 등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숍에서 이 항목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사용성(Use)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

참여자	제시된 의견
사용자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내에 통과동선이 만들어져서는 안 됨. 공간은 융통성 있게 그리고 대응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학교 요구에 부합되고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다 많은 교사가 필요함. 왜냐하면, 한 교실에 4-5학년이 함께 수업하기 때문임 모든 교실에 전자 칠판을 설치할 것 새로운 책걸상, 보다 큰 사물함, 보다 큰 홀이 필요함

사용성과 관련된 세부지표 중 수정 또는 보완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합의 도출되었다.

본 내용은 퍼실리테이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내용은 일반적인 의견부터 보다 구체적인 의견까지 기록되고 이것은 건물의 디자인팀에게 전달된다. 여기에는 가중치가 반영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되며 이것은 디자인팀에게 중요한 디자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비용증가를 줄이는 근거로서도 활용이 된다.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되는가?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CIC 주관 하에 6단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과정의 시작은 서류전형이다.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CIC는 서류로 지원자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능력을 검증한다. 이 검증에 통과하면 두 번째 과정인 약 20분 정도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비로소 세 번째 과정인 트레이닝 코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들간의 코스 중 첫째 날은 DQI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둘째 날은 DQI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받고,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받는다. 교육과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적 과정이 끝나면 워크숍 경험이 많은 퍼실

5)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 FAVE(Fundamental, Added Value, Excellence)라는 3단계의 가치부여 과정을 거친다. 최근 CIC는 도구의 개선작업을 통해 F를 R(Required), AV를 D(Desired) 그리고 E를 I(Inspired)로 수정하였다(RAVD).

리테이터와 수습의 과정을 거친다. 실제 DQI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와 수습의 과정을 거친다. 실제 DQI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도와 워크숍의 전 과정을 겪게 되고 퍼실리테이터는 그 결과를 CIC에 통보한다. 그 통보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지원자는 퍼실리테이터의 자격을 얻고 비로소 CIC의 퍼실리테이터 등록자 명단에 올릴 수가 있게 된다.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는 퍼실리테이터는 약 64명으로 이중 30명이 건축가 또는 설계 관련 종사자이고, 21명이 프로젝트 매니저, 기타 전문가이며, 10명이 도급업자나 의뢰자, 3명이 엔지니어, 1명이 심리학자, 1명이 조사 분석 전문가이다. 이러한 직업적 배경을 고려할 때 퍼실리테이터는 건축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프로젝트의 진행 순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CIC가 모든 퍼실리테이터 교육의 주체이지만 퍼실리테이터로 등록이 되는 순간 모든 퍼실리테이터는 CIC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는 퍼실리테이터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가 아닐 경우에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년 퍼실리테이터 컨퍼런스와 DQI 워크숍 후 참여자들로부터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받지만, 이것이 그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CIC도 성공적인 DQI 워크숍 결과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퍼실리테이션이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DQI 시스템의 국내 적용 가능성

DQI는 영국 내 공공건축 프로젝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디자인 품질 개선을 위한 도구이며, 그 활용의 폭이 학교나 병원건축 등으로 점점 세분화되어 넓어지고 있다. DQI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의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건축물의 상을 먼저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공건축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디자인품질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조달청 및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DQI와 유사한 제도를 통하여 공공건축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적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내 각 부처에서는 영국 DQI를 디자인관련사업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강하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DQI를 참고로 하고 있으나, 평가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지표화를 통하여 점수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DQI가 가지고 있는 지표와 평가 방법에 전제가 되는 것은 초기단계의 공통의 목표설정을 통한 지표생성과 평가를 통한 서로 다른 의사의 차이에 대하여 참여자들 간의 의사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 즉,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핵심사항이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이나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는 동시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DQI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좋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민, 행정가, 전문가들의 합의 및 방향설정, 즉 지표생성 과정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참여하여 한국의 좋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문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해서 행정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탕이 전제가 될 때 다음과 같은 국내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품질지표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1차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소홀하였던 2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유치원, 도서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소규모 공공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마을,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시설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건축물의 각 조성과정에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물의 조성에 관해 학교관련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관련 시설은 행정안전부, 도서관 및 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각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다. 각 시설물들은 세부적으로 다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근거하여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초기단계인 계획의 기본구상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성격에 적용하기 위한 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는 설계진행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준공에 이르기까지 초기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인 설계자의 설계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제시할 뿐이고 절차상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는 기존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각종 심의나 자문회의에 활용해야 한다. 일반인에 의한 만족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목표와 진행사항에 대한 공감 속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DQIFs의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경우, 설계과정 대부분이 건축주인 교육청과 설계사무소에 의해 주도되고 사용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참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건축 과정 중 심의 또는 설명회 같은 제도는 시간적인 제약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하는 관계자의 교육 및 학교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설계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DQIFs는 소수에서 다수로의 참여 방식 및 의사결정시스템의 변화와 전문가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참여자 확대를 통한 최선의 가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학교시설 사업에도 벤치

마킹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의 디자인 방향설정 및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초기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간 및 예산의 여건 상 시공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잦은 국내 여건에서 초기 기획단계를 명확히 정착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현재 영국의 DQIFS의 평가지표가 113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지표를 고려하여 평가를 시행할 가능성이 낮고 자칫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 응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를 간소화시키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연재를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지정하기 위해 많은 도구와 지표를 개발하거나 본떠서 만들었고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모두 판단주체가 객관을 위해 제3자로 정해지며 그 주체가 객체를 판단해 왔다. 객체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DQI의 과정은 앞서 서술한바 오히려 기획의 단계가 더욱 중요하며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최고에 달하는 순간이다. 또한, 제 3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논의하고 도출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뿐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DQI는 굉장히 정교한 도구다. 참여자들의 열망이 세 번의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반영되고 113개의 DQI 항목들의 가치들을 미세하게 변화시킨다. 이것은 DQI가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하게 변형되게 한다. 그러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결국 참여주체, 실행주체 그리고 행정주체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 이 소통의 중심에 퍼실리테이터가 있다.

CIC의 DQI 책임자인 Mr. Mark Way는 DQI는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단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소통체계고 처한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의견을 듣고 모으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건축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EDUMAC(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교육시설설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착수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많은 건축 관련 학회에서 공공건축에 사용자 참여의 개념을 도입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사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고 설득하는데 익숙한 건축사들에게 이 같은 시스템은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와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경험 많은 건축사들에게 퍼실리테이터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모쪼록 이 연재가 새로운 설계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강태웅, "영국의 교육시설을 위한 DQI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5호, 통권 제78호, 2010
2. 이화룡, "학교건축 기획단계에서의 DQI 적용 워크사례 :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 17권 제5호, 통권 제78 호, 2010
3. 김승제, 강태웅, 소갑수, 윤용집, 김종현, "영국의 사용자 참여형 DQI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 학회지, 제17권 제2호, 통권 제75호, 2010
4. 김상호, 김영현, 이민우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8
5. 성은영, 조상규, 고은정, 이진민, "학교시설의 성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10
6. Jonathan A. Hale,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 John Wiley and Sons LTD, Chichester, pp.187-211, 2000
7. Davide M. Gann et. al., "Design Quality Indicato as a tool for thinking: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Vol31 No.5, 2010